특집

가정의 달, 책 읽는 가족

특 집

가정의 달, 책 읽는 가족

“가족독서운동 캠페인: 책 읽는 가족이 됩시다”

도서관에서의 독서환경 조성은 우리협회가 그 동안 꾸준히 해왔던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이다. 특히 2000년대에 이르러 생활 속의 독서를 뿌리내리기 위하여 우리협회는 “가족독서운동 캠페인”을 전개해 왔다. 이름하여 “책 읽는 가족이 됩시다!”

이 캠페인은 가족단위의 독서생활을 통하여 책 읽는 사회 만들기에 기여하는 한편, 도서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 제고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의 독서기반시설로서의 도서관 위상을 확고히 정립하려는 목적으로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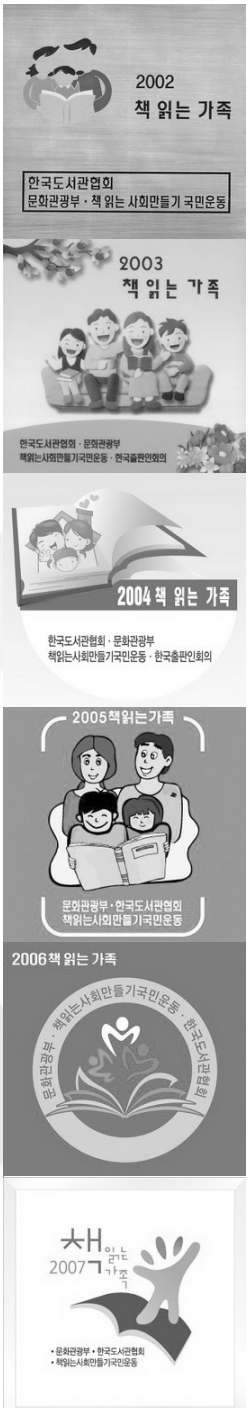
각 지역의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우리협회 단체회원인 공공도서관과 점자도서관 관장이 해당 도서관의 이용자 중 도서관을 잘 이용하는 가족을 발굴하여 “책 읽는 가족”으로 선정하고, 이를 우리협회에 통지하면, 우리 협회에서는 이 선정된 가족을 “책 읽는 가족”으로 인증하고, 한국도서관협회장과 해당 공공도서관장 명의의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는 방법으로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2002년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대구광역시에서 처음 시작한 것을 전국의 모든 공공도서관으로 확대하여 추진하면서 어느덧 이 캠페인을 시작한 지도 올해로 7년째가 되었다. 2002년도 223가족, 2003년 490가족, 2004년도 469가족, 2005년도 469가족, 2006년도 613가족, 2007년도 730가족으로 매년 증가하여 지금까지 전국에서 2,994 가족이 “책 읽는 가족”으로 선정되었다.

대전에서 만난 책 읽는 가족

책 읽는 가족의 선정기준은,

첫째, 해당 공공도서관에 가족 모두가 회원으로 이용자 등록을 한 경우
둘째, 가족 모두 도서관을 활발하게 이용하는 경우
셋째, 가족 모두 다른 이용자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경우



2002년 이후, 매년 두차례 씩 전국에서 선정된 책 읽는 가족에 대해 인증서를 보내면서, 가족 독서캠페인이 자리잡는 모습에 뿌듯함과 보람을 느끼던 중,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2007년 하반기 책 읽는 가족으로 선정된 가족 중 한 가족을 만나보기로 했다.

2007년 하반기 책 읽는 가족은 모두 335가족, 그 중에서 한 가족을 손꼽아 만나는 일을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러다가 3대, 여섯 식구가 도서관 회원인 가족을 발견하였다. 외할아버지(조재용), 외할머니(이애기), 아빠(이기동), 엄마(조안나), 아이들 둘(이지웅, 이지석)까지 대전 둔산도서관의 이용자인 조안나 씨 가족이었다.

조안나 씨는 큰 아이 지웅이를 출산하고 직장생활을 계속하기 위해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단다. 그러다가 둘째 지석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면서 전업주부가 되었으며, 그렇게 7년째 이곳 둔산동에 살고 있다.

2007년 6월 둔산도서관이 개관을 하였을 때는 조안나씨가 집과 가까운 거리의 도서관에 대해 무척이나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때였던 듯 싶다. 조안나 씨 가족도 둔산도서관이 생기기 이전에는 차를 타고 거리가 떨어져 있는 도서관을 찾아가야 했다. 집과 멀리 떨어진 도서관은 자주 가지도 못하였고, 주말에야 간신히 한번 가볼까 하는 정도여서 둔산도서관의 개관은 온가족의 환영을 받았다.

▲ 둔산도서관 이선자 분관장과 이야기 나누는 조안나 씨

▲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들에 들러 싸여있는 지웅이와 지석이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했던 조안나 씨는 새로 생긴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욕심껏 책도 많이 읽어 주고 싶었다. 도서관에 들어서자마자, 왼편에는 온돌방으로 된 영유아방이 있어 엄마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개구쟁이 여섯 살 지웅이와 네 살 지석이 두 사내녀석을 데리고 도서관에서 오랜 시간을 머문다는 것은 그리 녹록치 않은 일임을 금새 깨닫게 되었다. 도서관에서는 조용히 해야하고 얌전히 있어야 한다는 말을 그리 했건만 도대체 엄마의 말이 먹히지를 않는다. 조용히 책을 읽을라 치다가는 어느새 장난으로 한바탕. 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과 엉켜 장난까지 치면 도리어 엄마는 정신이 없어졌다.

이렇게 되어 아이들과 함께 도서관에 오는 일은 그만 두게 되었다. 개구쟁이 꼬마 녀석들을 야단치느니, 엄마가 혼자 도서대출카드를 가지고 실컷 책을 빌려와 집에서 두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게 어느 덧 일상이 된 것이다. 도서관이 생기고 나서, 6개월간 조안나씨네 여섯식구의 총 대출자료수는 1,800여책이다.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보고 싶은 책을 빌려 보는 날도 있지만, 그래도 이 가족의 도서 대출의 절대량은 바로 이 두 녀석들의 몫이다.

둔산도서관 이선자 분관장의 설명에 의하면 둔산도서관에서는 어머니들이 아이들과 가족의 회원증을 가지고 와서, 가족들을 위한 책을 대신 대출해 가는 일이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라고 한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유치원, 학교에 간 시간에 도서관에 와서 아이들에게 적당한 책을 고르고 빌려 간다. 그래서인지 어린이실 자가도서대출반납기 앞의 어린이 동화책과 그림책을 빌려가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들의 모습은 매우 익숙해 보였다. 조안나씨 역시 아이들을 위하여 거의 매일 도서관에 와서 책을 빌리곤 한다.

"아이들이 책과 함께 하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들었겠지요?"하는 질문에, 날마다 두아이의 잠자리에서 책을 읽어주고 있다는 대답을 돌려준다. 물론 올해 일곱 살이 된 지웅이는 서툴지만 혼자서 글을 읽기도 하는데, 그래도 엄마가 책 읽어주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한다. 아이들은 엄마가 책을 읽어주기로 한 시간에 깜박 졸기라도 하면,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양쪽에서 엄마의 눈을 크게 뜨이면서 얼른 책을 읽으라고 닥달을 한다.

조안나씨가 들려주는 에피소드 하나.

어느날 이런저런 일로 책을 못 읽어주어 그냥 잠자리에 들게 하였더니, 그 어린 꼬마들 입에서 "책도 못 읽고 잔다(?)"는 억울한 한탄이 터져나오더라고...

어떤 때는 아이들을 보게 하려고 빌려갔던 책을 되려 집안의 어른들이 읽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요새 그림책이나 화보집, 과학책 등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잘 표현되어 있어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두 돌려 보기도 하였다고 예를 들어주었다.

▲ 도서관에 쇼핑할 때 이용하는 카트를 가져와 책을 빌려가는 모습

오늘도 조안나씨는 도서관에 그냥 오지 않았다. 아이들을 위한 책을 빌려가려고 자가도서대출반납기 앞에 서며 반가운 미소를 짓는다. 이유인 즉슨, 보통 때는 대출하기 위해 서는 줄이 길어도 보통 긴 것이 아니라며,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 즉시 대출하는 것은 정말 운이 좋다는 것.

대부분 빌려가는 책이 그림책인 경우가 많아, 책 몇 권 만 해도 들고 가기에는 무게가 꽤 되어 이제는 도서관에 올 때 카트를 끌고 다닌다. 오늘도 바로 그 카트를 끌고 와 책을 빌려가는데,

▲ 아빠 이기동, 이지웅(7세), 이지석(5세)

▲ 자가도서대출기 앞에서 직접 책을 빌리고 있는 조안나씨

이렇게 카트를 끌고 도서관에 오는 어머니들의 모습도 둔산도서관에서는 매우 흔한 광경이다.

뿐만 아니다. 조안나씨가 알려준 중요한 정보가 하나 있다. 둔산도서관 근처 대형마트에서는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넣은 주머니와 가방은 따로 보관함에 넣지 않고 장 볼 때 갖고 들어가는 것도 허락된다는 것이다. 어쩌면 별거 아니겠지만, 바로 이런 모습이 지역사회에서 기반시설로서의 도서관이 자리잡았음을 보여주는 한 예가 아닐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가족독서운동 캠페인, 책 읽는 가족이 됩시다! 를 펼치면서 바랐던 모습이 아니었나 하고 생각해 본다.

도서관에서 빌린책을 카트에 가득 담아, 이제 유치원에서 돌아올 아이들을 맞으러 집으러 돌아가는 그 뒷모습에서, 일곱 해를 달려오며 끊임없이 탄생해 온 "책 읽는 가족" 이 우리 도서관계가 바라는 책 읽는 우리사회와 그 속에서 굳게 자리매김하는 도서관의 밝은 미래를 다시금 기대해 보게 한다.

대전 둔산도서관

둔산도서관은 2007년 6월 1일 개관하여 채 1년도 되지 않은 새내기 도서관이다. 둔산동에는 대전시 서구의 인구 51만명 중 20만명 이상이 살고 있지만 이렇다 할 도서관이 없어 근처의 유성이나 갈마동에 있는 도서관을 이용해야만 하는 등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2005년 9월 기공식 이후, 약 1년 8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1,000여㎡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지어진 도서관은 지하 1층에는 서고와 주차장, 지상 1층은 영유아방, 어린이실, 동아리방, 지상 2층은 전자도서실과 행정실, 지상 3층은 열람실과 시청각실이 각각 갖춰져 있다.

▲ 아파트에 둘러싸인 아담한 둔산도서관

▲ 도서관주간 행사중 인형극 선녀와 나무꾼

▲ 도서관에 들어서면 영유아방이 있다.

도서관이 처음 개관하자마자, 도서관을 기다리던 지역 주민들의 엄청난 이용에 사서들은 회원증 발급에 고개를 들 시간조차 없었으며, 서가에 책을 다시 배가하는 일은 엄두도 내지 못하였다고 한다.

도서관의 위치가 그야말로 사면이 아파트들로 둘러싸여 지역주민의 도서관에 대한 접근성이 좋았으며, 20만명의 열정적인 봉사대상 이용자가 있었던 것에 비해서 도서관의 규모는 한마디로 작았다.

그러나 둔산도서관의 사서들은 실속있고 알찬 도서관의 운영을 이루어 나갔다. 이용자들에게 자신이 이용한 자료는 스스로 서가에 꽂아줄 것을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교육하였으며, 도서관 구석구석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사서들의 열성과 노력에 이용자들은 자원봉사로 화답하였으며, 다시 사서들은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용자들에게 서비스하고자 하였다. 그렇게 지역사회의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가운데 둔산도서관은 머지않아 개관 1주년을 맞게 된다.

도서관을 살아있는 유기체라 한다. 도서관이 진정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위해서는 도서관에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고 만족하는 이용자, 이용자의 요구를 이해하고 진정으로 봉사하는 사서,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생동하는 정보가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규모있는 운영을 보여주고 있는 둔산도서관의 성장이 기대된다.

둔산도서관 홈페이지 http://dunsanlib.or.kr/ (042-471-2572~3)

[글 · 사진 : 김태경 회원협력팀장]

온돌방으로 된

▲ 둔산도서관에서는 이용자들 스스로 이용한 자료를 서가에 꽂도록 하고 있다.

▲ 청소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자발적 자원봉사가 이루어지는 도서관